

[리뷰]

삶은 어디에 있는가 -김훈과 밀란 쿤데라*

김 주 언**

1. 여기서 살자: 김훈

전직 병조좌랑 정오품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은 신흥 종교 천주교를 믿었다는 죄목으로 사학죄인(邪學罪人)이 되어 유배길에 오른다. 목적지는 절해고도 흑산도. 언제 해배가 되어 본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런 기약이 없는 길이고, 목숨이나 겨우 부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막막한 길이다. 김훈의 『흑산』은 정약전의 이 유배길에서 시작해 흑산에서의 정약전의 삶에 초점을 맞춘 장편소설이다. 『흑산』에는 ‘여기서’라는 제목의 장(章)이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여기서 살자’의 준말이다.

……여기서 살자. 여기서 사는 수밖에 없다. 고등어와 더불어, 오칠구와 더불어 창대와 더불어 장팔수와 더불어, 여기서 살자. 섬에서 살자. 울음 같은 말들이, 말에 미달한 채로 정약전의 마음속에서 치밀어 올랐다.(200쪽)

* 이 글은 김훈의 장편소설 『흑산』과 밀란 쿤데라의 장편소설 『생은 다른 곳에』를 대상으로 한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김훈, 『흑산』, 학교재, 2011; 밀란 쿤데라, 『생은 다른 곳에』, 안정효 옮김, 까치, 1988.

** 단국대학교 교수, kimjoo@dankook.ac.kr

‘여기서 살자’는 사학죄인 정약전이 수군진 별장 오칠구(吳七九)에게 수모를 당하고 돌아온 날 밤 혼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내린 침통한 결론이다. 김훤은 정약전이 실제로 천주교를 얼마나 신앙했는가 같은, 종교인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정약전 ‘마음속’ 일을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는다. “바다는 다만 하늘과 닿은 물일 뿐이었는데, 흔들리는 물 위에 햇빛이 내려앉아서 바다에서는 새로운 시간의 가루들이 물 위에서 반짝이며 피어올랐다. 천주가 실재한다면 아마도 저와 같은 모습일 것인가를 정약전은 생각했다.”(31쪽)는 정도의 서술이 고작이다. 흑산에 살면서 정약전의 마음에 ‘천주’의 모습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 일단 천주교에 대한 신앙 여부나, 천주교 때문에 받는 박해를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관심에서 벗어나서 본다면, 정약전이라는 인물에게는 오직 혈혈단신의 절대고독밖에 남지 않는다. 어디에도 그의 운명을 보호해 줄 신의 가호 같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 고립무원의 혈혈단신이 절해고도에서 살아보겠다고 밤늦게까지 홀로 술을 마시며 시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살자’에서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의 준말일 것이다. ‘지금 여기(now & here)’가 그의 모든 것이고, 그의 삶의 주소이다. 지금, 여기라는 시공간의 물질계를 떠나 무슨 초월적인 영혼이나 정신 같은 것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약전이라는 현존재의 실존성은 다름 아닌 이 흑산이라는 세계 안에 있다. 미래는 손에 짚 수 없는 타자라고 레비나스는 말한 바 있는데, 정약전의 현재 처지가 그렇다. 미래는 언제 그를 엄습하여 사로잡을지 모르는 타자에 불과하다. 그가 장악할 수 있는 모든 삶의 가능성은 지금, 여기에 할당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정약전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지금-여기 흑산은 정약전이 그동안 읽은 어떤 문자로도 이해하거나 전유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정약전은 아우 정약용의 권유대로 ‘흑산(黑山)’의 ‘흑(黑)’이 두려워 ‘흑(黑)’ 자를 ‘자(玆)’로 바꿔 ‘흑산’을 ‘자산’으로 불러보지만, 흑산은 흑산이다. 여기는 많은 조선 사람들이 육지의 중심으로 여기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물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

고, 어떤 문자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 바깥의 세상, 소외지대이다. 여기에는 기왕에 알고 있던 어떤 문자가 그려주는 세계상(世界像)의 안도가 없다. 지금 여기의 '나'를 식별해 주고, 정당화해 줄 자아중심주의나 인간중심주의의 문자 같은 것은 없다. 저마다의 학(學)과 경(經)이 켜켜이 파리를 틀고 있는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야 섬사람 중의 한 명이라도 될 수 있고, 마침내 최후의 인간중심주의마저 떨쳐버릴 수 있을 때 물고기의 친구가 될 수 있을 터이다.

정약전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했던 일체의 관념의 갑옷을 벗고 '선비'도 '사학쟁이'도 희미해지는 지점에서 섬사람이 되어 갔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감은 목선이 소금기에 절여지면서 바람에 삭아가는 일이나, 풀꽃이 풍매하는 일과는 다른 것이어서 다음과 같은 일말의 충격이 서서히 완충되어 가는 일이었는지 모른다.

새벽의 여명, 연못, 들판, 양 떼,
그리고 홀로 선 나무를 내다보니,
모두가, 학교에서 별을 받고 말없이 앉아 있는
아이들처럼 나를 응시하는 것 같네

(.....)

그들은 오직 속삭이듯 수련거린다.
(지난날 한때는 또렷이 소리 질렀을 법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숨조차 쉬지 않는구나)
“이상하군, 정말 이상해, 어쩌서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이냐!”
-토마스 하디, 「자연의 질문」 부분¹⁾

다소 침울하게 보이는 이 은총이 없는 지경(地境)은 혹 어떤 경지(境地)가

1) 토마스 하디, 『하디 시선』, 윤명옥 옮김, 지식의만드는지식, 2010, 63쪽. 여기 인용 문은 이 번역본에서 일부분을 수정해 옮겼다.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역설적으로 이 경지는 『자산어보』의 저자 정약전에 게 물고기의 생태가 필생의 과제로 눈에 들어올 수도 있는 바탕이다. 정약전의 눈에 물고기는 성리학이나 천주학(당시에는 ‘서학西學’이라고도 했다)의 먹물세례를 벗어난 지점에서 비로소 보였을 것이다. 비로소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니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눈에 들어오는 법이다. 아니,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으로 눈에 들어오는 법이다.

이래 봐도 선비인데, 선비가 세상을 논하고 인륜도덕을 고담준론해야지, 무슨 물고기 타령인가. 고작 먹는 것 타령에 빠질 만큼 그렇게도 배가 고프는 것인가. 이 무슨 딱한 퇴행이란 말인가. 저 바다 저편 강진의 자랑스러운 아우 정약용을 보라. 같은 유배 신세이지만 그는 유배 중에도 붓놀림 하나로 세상 이치를 궁구하고 시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렇게 볼 일만은 아니다. 형제지만 각자에게 축적되어 있는 시간의 결이 다른 것이고, 그 결 안팎에서 만나는 사건들도 다르다. 특히 무엇보다도 언어가 다르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약전에게만 있을 수 있는 그만의 고유한 가능성의 언어를 지지해 주는 입장에서 사유해 보자. 정약용의 언어가 대자 존재의 언어라면, 정약전의 그것은 즉자 존재의 언어이고 즉물의 언어이다. 가치 지향과 편향으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운 영도(zero degree)의 언어, 가치 중립의 언어가 물고기의 언어가 아니겠는가.

여기, 바다에서 난파된 삶이 있다. 이 바다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난바다, 망망대해다. 다행히 뗏목이 하나 있는데, 사는 길은 이 뗏목에 온몸을 결박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해 삶을 이 뗏목에 못박는 것이다. 다른 삶의 가능성은 없다. 이 뗏목의 이름은 ‘지금-여기’이다. 물고기의 언어는 정약전이 난바다에서 발견한 지금-여기의 언어일 것이다. 그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여기에서는 말로 발설할 수 없는 의식의 괄호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괄호 안의 내용물들이 출렁거릴수록 지금-여기에서의 삶은 헛것이 되어 간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도 덩달아 헛것이 되어 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움이라는 유령이 삶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

도록 팔호 안을 단단히 단속해야 한다. 팔호 안의 것은 따라서 일상에서 의식의 수면으로 출몰하지 못한다. 이 팔호 안의 것이 떠오르지 않는 지평으로 흑산에서의 정약전이 오늘을 살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다. 바로 이 발걸음 아래에서 팔호 안에 묶인 것들도 점점 야성을 잃어가고 그의 지금-여기의 삶에 자리를 내어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부재가 비존재처럼 되어갈 때, 비존재처럼 된 부재는 생필품이 아닌 것으로 자연화된다. 이 자연 공간에서 지금-여기에 결박당한 실존은 이제 결박을 풀고 결박 대신 뿌리를 내린다.

산다는 것은 단지 ‘시간 버티기’나 ‘시간 견디기’가 아니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다. 그것은 살아지는 대로 삶의 물결에 내버려두기 정도일 것이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것은, 때로는 물결에 맞서며 주체를 구성해 나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구성적 힘을 장악하는 일이다. 그래야 지금-여기의 삶을 거머쥘 수 있다고 하겠다. 정약전의 『자산어보』는 그 손아귀의 힘에서 나온 한 자, 한 자의 글자들인 것이다. 정약전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했던 관념을 제로화하는 환원의 힘으로, 지금-여기의 삶에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긍정의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그려낸다. 이것은 단지 또 하나의 문자의 세계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문자 표상이 전혀 꿈꿀 수 없었던, 가히 새로운 노마드 문자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대가요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의 한 대목을 비틀어서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님이여, 바다를 건너지 마오.

2. 생은 다른 곳에: 밀란 쿤데라

밀란 쿤데라의 『생은 다른 곳에』는 작가의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릴 정도로 재주를 많이 부린 작품이다. 일종의 예술가 소설로 분류될 수 있는 이 작품에서 쿤데라의 재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작품

의 시공간을 자유자재로 모자이크해 놓는 재능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 정치사와 예술사에 대한 작가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제의 혼용, 과거의 현재화, 사건의 동시성 등이 전시된다. 시인의 삶을 다루며 단지 한 시인의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연대기적 생애사 전개에만 몰두하는 것은 쿤데라의 스타일이 아니다. 먼저 주목을 끄는 타이틀을 보자. 소설의 타이틀인 ‘생은 다른 곳에’ 역시 원화가 여러 장 합성되어 있고 복수의 에피소드들이 결합되어 있는 지적 모자이크다.

‘생은 다른 곳에.’

1968년 프랑스 소르본대학교 담벼락에 학생들이 쓴 낙서의 내용 가운데 이런 슬로건도 있었다. 랭보가 남긴 유명한 말이고, 앙드레 브르통이 그의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결론으로 인용했다고 해서 더 유명해진 말이다. 랭보는 물론 68혁명의 시위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쿤데라는 이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샤를르빌을 아예 떠날 수도 없었던 랭보를 대신해 1968년에 “수천 명의 랭보”가 파리의 바리케이드 뒤에 서서 현재 세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과 어떤 타협도 거부하고 있다고 쓴다. 랭보를 이렇게 출현시킬 뿐만 아니라 퍼시 셸리도 등장시킨다. 쿤데라에게 퍼시 셸리는 물론 역사적으로 사멸한 시인이 아니라 런던을 떠나 반란의 소용돌이 아일랜드로 가는 중이다. 그렇다. 참된 생은 다른 곳에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면적인 인간 해방을 위해 바리케이드를 일으켜 세우는 곳에, ‘생은 다른 곳에’ 있다고 믿는 시인들이 무리를 지어 탄생한다.

바리케이드를 향해 나아가는 인류의 이 행진은 특정 역사적 시공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때는 1968년에서 1848년이고 1870년이고 1945년이며, 장소는 파리에서 바르샤바이고 부다페스트이고 프라하이고 빈이다. 이 바리케이드에서 저 바리케이드로 역사를 통과해 나가고 돌파해 나가는 행진의 미래는 무엇인가. 소설가 쿤데라는 이 행렬에서 유보 없는 환호 대신에 어떤 불만을 남겨 놓는다. 모두가 들떠 즐거워하는 행렬에서 시인 퍼시 셸리는 행복하지 않고 혼자이다. 여전히 생은 다른 곳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퍼시 셸리가 철저히 혼자인 것은 아니다. 이

제 쿤데라의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이다.

『생은 다른 곳에』의 주인공 시인 야로밀은 생각한다. 이 모든 역사의 행진이 위대한 혁명적 시위의 키치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래서 거기에는 적어도 기어올라갈 바리케이드도 아무런 실체도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만 연기처럼 허공에 사라질 따름이라고. ‘생이 다른 곳에’ 있음을 알았기에 퍼시 셸리는 더블린의 거리를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탈주를 거듭했다. 랭보도 슈투트가르트로, 밀라노로, 마르세유로, 아텐으로, 하라르로, 다시 마르세유로 탈주를 거듭했다. 그럼 쿤데라의 주인공 시인은 어디로 탈주할 수 있을까. 야로밀에게는 자비에르가 있다.

자비에르는 기나긴 회색 끈처럼 탄생에서부터 죽음에까지 이르는 단 하나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렇다. 그는 그의 삶을 살지 않고 - 그는 그의 삶을 잠자고, 그 잠은 삶 속에서 꿈과 꿈 사이를 오가며 뛰어다닌다. 그는 꿈을 꾸고, 한참 꿈을 꾸다가 잠이 들어서 또 다른 꿈을 꾸고, 그래서 잠은 하나의 상자 속에 다른 상자가 들어 있는, 여러 개의 상자와 같다.(98쪽)

한 삶에서 다른 삶으로 건너다니는 사람, 죽어야 할 운명임에도 여러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한 꿈에서 다른 꿈으로 옮겨다니는 사람, 아름다운 여자에서 또 다른 아름다운 여자에게로 마음대로 옮겨다니며, 그 여자가 심지어 배우자가 있어도 멋대로 차지하는 사람, 잠과 꿈을 구분하지 않으며 꿈과 꿈을 포개고 꿈과 꿈 사이를 오가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자비에르다. 가령, 여기 아름답고 유연한 여자가 누워 있다. 그러나 자비에르는 주저없이 당당하게 ‘배반’을 선언하고 그녀 곁을 떠난다. 생은 이제 여자의 배 위가 아니라 “생은 바깥에, 새가 우는 소리처럼 아득한 총 소리가 흘러들어오던 창문 밖 저 멀리에 있기 때문에 그녀를 떠나야만 한다(107쪽)”는 것이다.

이미 다른 작품에서 니체 철학에 대한 뛰어난 해석 능력을 보여준 바 있

는 쿤데라는, 아마도 니체의 “조국에 매여서는 안 된다, 연민에 매여서는 안 된다, 자신의 미덕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식의 주문 정도를 자비에르의 행동강령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자비에르의 정체는 시인이며, 꿈이며, 반란이며, 혁명이며, 배신이며, 그리고 자유이다. 이 노마드의 이름을 쿤데라는 ‘자비에르’라고 적고 있지만, 그의 가리워진 본명은 필시 ‘욕망’일 것이다. 즉 자비에르는 순수 욕망의 인격화이다. 자비에르는 실제로는 ‘못 생긴’ 여자와 연애나 하는 야로밀이 지어낸 가공 인물이다.

‘생은 다른 곳에’라는 낙서가 소르본의 담벼락에 쓰여 있었다고 했는데, 쿤데라는 또 하나의 낙서를 소개한다. “섹스를 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혁명을 하고 싶고 - 혁명을 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섹스를 하고 싶다.” 이 구호는 욕망의 무한 탈주선에 이정표 하나를 제시해 준다. 참된 생이란 개인의 육체적인 사랑과 군중들의 혁명의 구호가 전혀 차원이 다른 별개가 아니라 동시에 하나로 소용돌이치는 세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이나 혁명이나 따위의 고전적인 양자택일은 가짜 대립이 된다. 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가. 왜 이 가짜 대립에 희생되어야 하는가. 야로밀도 그의 생의 가능성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의 실존의 주소를 이 가짜 대립이 해소되는 지점에 정위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남자들이 그들의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녀를 사랑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의 여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저지르고 만다. 야로밀은 이 자기기만을 ‘위대한 시’의 기회로 착각해 보지만, 이미 야로밀의 선택에는 치명적인 운명의 장난이 투입한 이후이다. 사소한 거짓말이 사단이 되어 야로밀의 여자는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 야로밀은 ‘못 생겼다’는 빨간머리 여자 대신 ‘미모의’ 검은머리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다가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운명의 장난이 투입한 이후 야로밀의 운명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농담처럼 장난의 것이 되고 만다.

어떤 독자도 이 소설에서 망명 작가 쿤데라가 혁명의 가능성이나 공산주의의 가능성 같은 것을 추구했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인공의

설정 자체가 이런 주제와는 거리가 멀다. 시인 야로밀은 상처받기 쉬운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루한 욕망의 주인공이고, 모순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기질 또한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야로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 그는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인물이기는 하다. 야로밀은 위대한 서정시의 시대나 진보나 혁명이 희망을 주는 시대의 산물이 아니다. 시인의 ‘한 말씀’이 떠받들어지던 시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68 혁명에 자신의 사상의 젓줄을 대고 있는 알랭 바디우에 의하면 서구에서는 니체 이래로 철학자들은 모두 시인이기를 열망하고 시인들을 부러워했으며, 또 시가 철학이 못 하는 일도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대는 바로 힐덜린과 파울 첼란 사이의 시대다. 야로밀은 불행하게도 위대한 서정시의 시대가 아니라 서정시가 한물 간 시대의 산물이고, 진보와 혁명의 신화가 회의의 대상이 되는 환멸의 시대가 낳은 아들이다. 쿤데라는 시종 주인공 시인을 그의 어머니로부터 독립시키지 않고 있으며, 톱툰이 그가 쓴 ‘시’라는 것을 조롱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일상 세계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를 일삼는 아웃사이드 시인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참다운 세계에 대한 인류의 문제의식은 유서 깊은 것이다. 그것은 단지 심정적인 거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론적 동경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안 체제에 대한 실천의 문제이기도 하다. 쿤데라의 『생은 다른 곳에』는 우리에게 이 실천이 전개되는 역사의 무대에서 인상적인 좌절의 에피소드를 오려붙여 아주 사소한 아이러니처럼 보여 준다. 키치와 환멸의 시대에 ‘생은 다른 곳에’의 ‘다른 곳’은 정처가 없다. 방황의 발자국만이 자욱하다. 생은 다른 곳에 있거나 생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적어도 자비에르는 이 부재를 기억해 줄지 모른다. 아무 유보 없이 일체를 욕망하는 우리의 자비에르는, 랭보가 기껏해야 가족묘지에 묻히고 야로밀이 죽어도 살아 남았다.

자비에르가 아닌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다. 질곡의 땅 조선에서 삶을 받은 정약전은 섬을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 흑산에서 죽었다. 야로밀은 그토록 소원하던 어머니로부터의 분리 독립 하나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모친

의 슬하에서 생을 마감한다. 비약이 없는 운명이란 이런 것이다. 운명은 늘 모든 것들의 무거운 반복을 명령한다. 운명에게 자유란, 자유가 허구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에 이르는 과정에 다름 아닐 수도 있다. 참다운 삶, 진정한 삶을 위해 오늘은 그래도 이만큼 왔나를 생각할 때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 그러나 이 과정, 이 길 위에서 모든 것이 도로(徒勞)에 그치는 것은 아닐 터이다. 누구도 자신의 삶에서 뛰어나갈 수 없지만 야로밀은 환멸과 함께 자비에르를 낳았고, 조선의 정약전은 스스로 새로 위지는 법을 찾아 당대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제자리서 멀리뛰기 신기록을 남겼다.